

2023 임팩트그라운드

사업결과보고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과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출범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혁신조직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내고,
스케일업/스케일아웃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자료는 2023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받는 사회혁신조직의 사업결과보고서입니다.
사회공익을 위해, 본 자료를 공유하며, 영리목적의 사용이나 자료의 편집은 불가합니다.

[2023 '임팩트그라운드' 사업결과 보고]

2024.01.23.(화) 핸드스피크

구분		내용	자료
주요사업	공간	- DeafSpace(농문화공간) 계약 완료	p.2
	발굴	- 농인댄서 1명(오디션 선발) / 총 29명 - 한국수어통역사 1명 채용 / 총 5명	
	양성	- 2023 농예술아카데미 : 예비아티스트 30명 발굴 - 2023 국제워크숍 <농MZ세대, 예술과 리더쉽 만나다> - 예술 수어 어휘 755개 수집 및 교재 틀 설정	p.3
	활동	- 누적관람객(조회수포함) : 300만명 - 농문화예술콘텐츠 : 80개 <월간 핸드스피크>, <EBS 딩동댕유치원>, <국립극장 우리읍내>, <삼성전자: Global Accessibility Festival> - <콜라보> 1MILLION, DeafWest 외 - <해외>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독일, 프랑스 - <수상> T4P 미디어상(Together for Peace Media Awards)	p.4 ~ p.7
홍보		272건 노출 언론매체: 168건, SNS(블로그,유튜브포함): 104건	p.8
담당자 정보		정정윤(대표) jjung0075@hanmail.net 010-2550-4865	

1. Deaf Space(농문화공간)

Deaf Space(농 친화적인 환경)기반의 교육 환경 논의를 통해 농인이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때 Audism(청인중심)의 환경이 아닌 농친화적인 환경에서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마련한다. 단순히 잘 울리는 바닥, 전체적인 시각 확보 뿐만 아니라 매순간 상황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논의 될 수 있는 Deaf Space 논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고 콘텐츠 제작과 아카데미 진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 환경을 만들었다. 계속해서 매뉴얼화 된 공간이 아닌 **농인에 의한 농인의 공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도하면서 그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1) 공간 조건

- 지상, 통유리 : 재난, 긴급 상황시 소통 및 접근이 가능한 통유리창과 지상층
- 방음 : 스피커 출력을 최대한으로 했을 때, 소음 발생이 되지 않는 벽
- 진동바닥 : 비트와 울림이 느껴질 수 있는 진동바닥 및 연습공간
- 디지털조명, 원형테이블 등 : 어디서든 수어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사무집기

2)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83, 3층(스튜디오), 4층(사무실)

3) 계약일 : 2023.07.05.(수)

4) 공사기간 : 2023.07.05.(수) - 07.31(월)

DEAF SPACE Accessibility, Universal, Handspeak



▶ 농인 아티스트들의 공간 피드백

- 바닥은 연습 진행할 때 박자감을 느낄 수 있으며 제작 과정에서 바닥 진동이 있어 소통, 진행의 퀄리티 높아짐
- 가끔 밖에서 큰 소리나 진동이 있을 때(경찰, 행사, 차사고 등) 바로 통유리 통해 외부 상황 바로 파악할 수 있음
- 방음 통해 청능주의 사회에서 소리에 대해 늘 신경 써야 하는 것을 줄일 수 있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음
- 동료, 수어통역사와 수월한 소통을 위해 원형 테이블 배치로 정보권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업무에 더 빠른 진행할 수 있음
- 기둥이 없어 시각적으로 배제되는 것 없이 전체를 볼 수 있으며 서로 보기 좋게 위치 배치하는데 제한이 없음

2. 2023 핸드스피크 농예술아카데미 : 예비아티스트 30명 발굴

농인이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두고 수어통역의 배치 유무로 이 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현 농교육 지원 체제의 문제점을 가시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농인 기획자가 준비단계부터 개입해서 농인 수강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청인강사가 진행하는 수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농문화의 이해를 위한 시간을 마련해서 함께 공부했다. 또 무엇보다 통역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간접이 아닌 직접 교육을 받는 것이 앞으로 농교육의 과제라는 것을 고려해 농인 강사가 진행하는 아카데미도 추가했다. 통역을 “제공” 하는 것이 아닌 **농인에게 온전한 교육환경과 농인 감수성을 기반으로 진행된 수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수업 참여자는 대체적으로 추후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것은 곧 예비아티스트를 발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1) 주제 : 2023 핸드스피크 아카데미 시즌2
- 2) 일정 : 2023.10.30.(월) - 12.04(월)
- 3) 장소 : 핸드스피크 스튜디오, 헤이그라운드
- 4) 과목(강사) : 연기 기초반(라겸재 배우), 연기 심화반(김정현 배우), 에세이(이슬아 작가), 수어문학(변강석 박사, 손칭 강사), 현대무용(젬마 안무가), 스트리트댄스(신나영 안무가)
- 5) 대상자 : 예술에 관심있는 농인 청년 34명 → 예비아티스트 30명 발굴



▶ 핸드스피크 아카데미 시즌2가 궁금해! https://blog.naver.com/hand_speak/223319205490

3. 농문화예술콘텐츠 80개 기획/제작

농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속해서 생산하는 것은 한국수어를 사회에 노출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월마다 1회 이상의 자체 수어콘텐츠를 제작하고 대중이 주목하고 있는 댄서들과의 협업, 어린이 프로그램을 통한 방송 노출 등을 통해 **농인이 직접 자신의 언어로 감수성에 기반한 활동을 사회의 가시화** 시켰다. 이 작업과정은 “수어”를 사용한 청인의 콘텐츠는 늘 청인에게만 환영받고 농인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불쾌한 콘텐츠가 생산되는 상황에서 농인에게도 지지 받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청인 아동과 그 부모처럼 실제로 대다수의 청인이 콘텐츠를 향유한만큼 농사회 내에서도 **농아동, 코다아동, 불취학 농인에게 적극적인 교재가 되기도 했다.**



- 1) <This is me_핸드스피크x농인청년 메가크루> 조회수 11,565회 (2024.1.24.기준)
- 2) <보건복지부공익광고> 조회수 2,864,824회
- 3) <원밀리언x핸드스피크> 조회수 2,880회
- 4) <EBS딩동댕유치원> 18편, 5-8월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EBS 1TV 방영중
- 5) <월간핸드스피크> 12편, 총 조회수 27,948회

▶ [\[#월간핸드스피크/5월\] ♪LoseYourself-에미넵/수어\(KSL·Korean Sign Language\)Cover/김지연\(of Handspeak\)](https://youtu.be/PI_t6WO1p9s)
https://youtu.be/PI_t6WO1p9s

1. CO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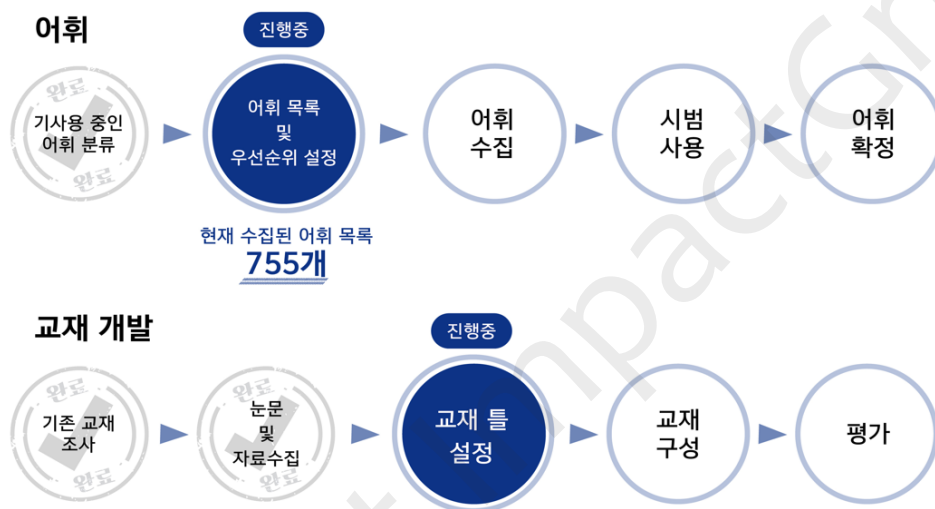
Children Of Deaf Adult의 약자로 농인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를 가르킨다. 제 1언어를 수어로 익히고 농문화 속에서 자라며 청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청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고 양쪽의 교차적인 문화와 언어를 넘나드는 특징이 있다.

2. 불취학 농인

한국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교육환경이 마련되지 얼마 되지 않았다. 과거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면서 교육을 받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 청인 장애인의 경우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한국어라는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존재들과 소통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문맹이 될 확률이 낮은 반면 농인의 경우 농학교를 가지 않으면 청인들 사이에서 언어적으로 고립된채 자신의 언어를 갖지 못하고 언어를 기반으로하는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러한 경우 한국수어를 자신의 언어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문맹일 확률도 높다. 60대 이상의 노인에게서 흔하게 볼 수 있으며 불취학 농인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과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각 시도협회에서 진행 중이다.

4. 예술 수어 어휘개발 및 교재 개발 : 예술 수어 어휘 755개 수집 및 교재 틀 설정

예술분야의 수어 어휘를 개발하고 개발된 어휘를 포함한 수어교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어휘개발은 현재 예술분야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어휘를 먼저 수집하였다. 대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무용, 사진, 연기, 연극, 연출, 영상, 작가 수업의 교재를 선정하여 전문어휘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어휘는 총 755개로 집계되었다. 755개의 어휘 중에서 어떤 어휘를 먼저 개발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재개발은 기존의 한국수어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수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교육과정, 관련된 논문 등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교재의 틀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예술 수어 어휘개발 및 교재 개발 진행 단계]

기존 한국수어 어휘 개발 방식은 한국어에 존재하는 어휘를 인공적으로 의미 분석해서 만들어낸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예술 어휘 개발 방식은 자연 언어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언어 말뭉치)를 제작하고 필요 어휘를 그 안에서 수집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대부분 전문용어 한국수어가 만들어지고 책으로 출판이 되어도 현장에서 버려졌던 과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에서 농인 아티스트가 활동할 때 살아 숨쉬는 언어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을 탄탄하게 설계하고 진행함으로써 예술전문 언어가 부재했던 기존 농예술 활동을 뒷바침 할 수 있다.

5. 2023 농예술 국제워크숍 <농MZ세대, 예술과 리더십 만나다>

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예술인만의 전유물로서의 예술이 아닌 자신의 내면과 사회에서 비로되되는 소수자성에 대한 표현과 사유로의 예술을 경험했다. 예술로 이어지는 리더십은 다수의 표준화 된 내용이 아닌 각 나라의 강사가 직접 농인으로서 사회에서 경험했던 것을 어떻게 예술로 표현했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는지 경험을 공유하면서 리더십의 중요성과 마음가짐을 농인강사와 농인참여자라는 유대감 형성을 기반으로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리더십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었고 농 청년 리더들이 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 1) 주제 : 농MZ세대, 예술과 리더십 만나다
- 2) 일정 : 2023년 5월 17일(수) - 5월 21일(일) 4박 5일
- 3) 장소 : 좋은아침연수원
- 4) 강사 : 해외 농인예술가 및 디렉터 4명
 - David de Keyzer(다비드, 프랑스) - 플랑더르페스티벌(세계농예술) 디렉터
 - Leonardo Castilho(레오나르도, 브라질) - 음악(수어) 예술가
 - David Kurs(디제이커스, 미국) - DeafWest 극단 디렉터
- 5) 대상자 : 만 19~39세 농청년 20명
- 6) 내용 : 농인이 기획하고 창작하는 예술 창작과 리더십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해외에 다양한 농문화 기반 예술활동과 시도의 경험을 공유하며 영감을 얻고, 농청년이 청인 중심사회에서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토론했다



▶ [국제워크숍 5일차] 우리 언젠가 또 만나요 https://blog.naver.com/hand_speak/223154815454

6. 해외활동 :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농인 당사자 예술인이 모여서 농문화에 기초한 예술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단체는 국내에서 핸드스피크가 유일하다. 이것은 특별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쉽게 고립되고 고여서 머무를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펼쳐 나가는 해외 농인예술인과의 교류가 중요하다. 핸드스피크는 2023년 독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초청을 통한 농인예술인과의 국제교류를 통해서 세계 농예술의 동향을 살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초청공연을 통해서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하는 농예술을 세계 무대 앞에서 선보이며, 해외 유명한 아티스트(팀)들과 콜라보를 약속하고 왔다.

1) 남아프리카공화국 2023.09.26.(화) - 10.08(일)

- : 2023년 남아공수어(SASL)를 12번째 공용어로 인정됨을 축하하는 초청공연 및 강연
- MCK 농학교(MCK Special School for the Deaf)
 - SV 농학교(St Vincent School for the Deaf)
 - eDEAF 농직업학교(eDEAF, Employ And Empower Deaf Pty Ltd)
 - CFDS(Changing the face of Deaf Education in South Africa, 농교육연구센터)5년 기념식
 - Film & Arts Festival(농예술, 영화제)
 - FunDay(농어린이 워크숍)
 - 주남아공한국대사관 국경일 기념행사

2) 독일 2023.11.09.(금) - 11.11(토)

- : 국제 농인 영화제인 델라 영화제(della AWARD 2023)의 시상식&파티 축하
- 탈리아 키노(Thalia Kino), 스튜디오 바벨스베르크(Studio Babelsberg) 포츠담 독일



▶ 핸드스피크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뒀다! https://blog.naver.com/hand_speak/223310376910

7. 홍보 노출 : 272건 언론 168건 / SNS 104건

- 608건(누적) 언론 405건 / SNS 203건

“‘핸드스피크’가 진행하는 아카데미를 기반으로 농예술헬교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나 이벤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상자(농인)들을 고려하고 필요성을 인지하는 인식이나 지속가능한 제도, 그 다음에 농문화 삶에 기반한 정책들, 누군가의 설득이 아니라 의무화가 될 수 있는 법률들이 만들어져서 삶에서도 일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꾸준히 노출시키며 핸드스피크 미션과 비전, 그리고 ‘농인’과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 [EBS NEWS] <뉴스브릿지> '보이는 언어'로 만드는 예술...농인 아티스트들의 '핸드스피크'

<https://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396492/H>

▶ [SBS NEWS] 수어로 풀어낸 무대 위의 예술...감동 전하는 연극배우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41553

8. 수상 : T4P 미디어상(Together for Peace Media Awards) TV-다양성 강화 부문 수상

핸드스피크의 활동 계기와 기반이 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농인 셋 청인 하나”는 한국에서 농문화에 기반한 농인의 예술 활동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떻게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담고 있다. 이 영화의 가시화를 통해서 지지자층을 확보하고 앞으로 핸드스피크가 필요한 메시지를 사회에 던질 때 힘이 되는 자료로 계속해서 언급될 수 있다.



▶ ABU-유네스코 주관 국제상, '다큐 인사이드' '농인 셋 청인 하나' 수상작 선정

<http://www.speci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645>